

2025.12.21.

순서와 형식을 갖춘 의식을 직접 만들고 행한다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인 마음을 물질계에 존재하는 것들로 직접 행위함으로서 의식계를 비롯해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¹ 그건 마치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 일과도 같으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벌어지는 의식은 극이나 축제의 형식으로도 연결된다. 손님과 주인, 적과 이방인이 모두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그러한 사실들은 멀고 낯선 손님들과 텅 거실에서 하는 프루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개와 함께 하는 프루이, 혹은 이미 몸이 손상되고 헤쳐진 사체-친구들과 하는 프루이—오로지 눈꺼풀을 닫은 순간에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손을 맞잡는 중간 세계를 잠시간 이 자리에 새기는 일로 나아간다.

〈아이도 고양이도 개도 다 자러 들어갔고, 손님들만이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다 깨어있습니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시간의 입구를 연다. 차연서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장소, 잠시 빌려 머무는 장소, 객이자 이방인이 되는 장소에서 그의 더러운 집, 주인 아닌 집, 주인 없는 집을 겹쳐 부르는 시간을 상상한다. 그곳에 초대된 손님들은 함께 짐을 옮기고 유품을 옮긴 후 텅 비운 거실에서 〈프루이 기본 규칙〉을 배운다. “프루이”라는 출처 없는 이름이 정말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배우지 않는 채로, 손님들은 이후 또 다른 장소나 공동체에서 프루이를 호스트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불 꺼진 집에서 시작하는 2부는 “저 고양이들!”을 포함한 29편의 김언희 시와 “레이디 라자러스”를 포함한 9편의 실비아 플라스 시를, 차연서가 ‘포에트리-컷 콜라주’로 오리고 붙여 구성한 발췌록 형태의 대본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김언희 시인의 언어들을 암독하고 온 몸으로 받아 행하는 **배선희**는 연극 배우이며, 매일 일기를 쓴다. 그는 〈아홉 목숨〉에 대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어떤 여자가, 여자라고 보이거나 부르기 난처한 어떤 몸뚱이가 곤란한 채로 그곳에 있다²”고 적었다.

실비아 플라스의 시어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고, 섬세하게 설계된 목소리 톤의 변화로 낭독하는 **손나리**는 영미시 연구자이다. 앞서 발표했던 퍼포먼스 〈저 고양이들!³〉에서 〈부활하신 어머니〉를 초연하던 이들 동안, 그는 기차로 고향을 오가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퍼포먼스 발표에 찾아올 수 있게 된 자신의 어머니를 〈봄밤〉에 초대한다. 흰 몸으로 되리를 튼 열두 개의 회전하는 뱀이, 어슴프레하게 밝은 암전 속에서 알몸으로 빛난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웃음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프루이 변형 규칙인 〈침묵 프루이〉로 3부가 시작된다. **동환스님**이 불교의식을 전수하고 행하며 경험하기를—소위 ‘남자소리’ 주로 몸의 앞면과 아랫배에서 울림이 나오지만, 소위 ‘여자소리’, 를 부를 때는 뒤통수와 온 등이 다 열리게 된다.⁴ 동환스님은 〈원좌계—진령계〉를 그러한 두 갈래 소리로 실연한다. 그 소리

1. 시이나 우미, 〈아오노 군에게 당고 싶으니까 죽고 싶어〉. 에프터눈에서 2017년부터 연재중인 일본 만화. 공포영화에 법칙이 있듯이, 생과 사,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의식에도 법칙이 있다고 소개한다. ‘참회참회 육근청정 (懺悔懺悔 六根清淨)’을 외는 의식이 등장하며, 주인공들은 규칙을 알지 못한 채로 참여하게 된 의식 속에서 그 안의 게임 규칙을 찾아가며 주도권을 되찾고 나쁜 결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2. 배선희의 일기장에서 직접인용.

3. 차연서, 〈저 고양이들!〉, 퍼포먼스, 60분, 2025. (발췌록—대본/연출 차연서, 퍼포머: 배선희, 손나리,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기획전 sent in spun found 연계 퍼포먼스, 2025.11.21.-11.22.)

듣는 존재들이 눈물 흘린다면—그 눈물이 회한일지, 참회일지, 한풀이일지, 혹은 오롯한 기쁨일지, 마음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눈물은 같은 것이라 스님은 말한다.

Isu Mignon Mignonne(이수 미농 미넌 異水 謎龍 未焔)은 김이이수의 드랙 이름으로, <12머리 자리>로 출현한다. 1부터 365까지 세며 목소리를 변조하는 기법은 “트랜스젠더의 목소리에 대한 리서치과정에서 발명된 스코어⁵”로 그의 2024년 작 <미리-네-소리>에서 초연되었다. 그의 작업에서 오작교에서 만나는 견우와 직녀는 같은 사람으로, 여자는 남자를 향해, 남자는 여자를 향해 다가가지만 두 존재는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채로 은하수처럼 공전하다가 일년에 단 하루 만난다. <봄밤>에서, 그러한 기다림과 숫자 세기는 차연서가 법의학책에서 떼온 열두 개의 ‘머리’들의 이름에 접속하며 직설적인 흉내내기로 구체화된다. ‘종이, 톱니, 구더기, 쥐, 거인, 아기, 군인, 산, 유리병, 자동차, 고양이, 작은’⁷—의 순서로 실연되는 그 이름들은 그들이 죽은 원인이거나 사후 훼손된 이유이며, 때때로 부패가 진행된 모습에도 연관된다.

퍼포먼스 소요시간인 3시간 동안 <창고>에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개 **Tetokun**(테토군)이 내내 잠들어 있다. 그 앞으로 해가 기울고, 일몰이 지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기웃거리며 오간다. 그는 고립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로움에 대한 퍼포먼스를 <봄밤>의 모든 시간에 선물한다. 창고지기이자 비인간-퍼포머 Tetokun의 동행자인 **지이호**는 빈 시간에 조각도로 씨앗을 깎는다. 그의 아보카도 씨앗 카빙 조각 <너스쿨>이 둥글게 모여 <봄밤>의 유리 창고 한켠에 전시된다. 그는 거의 빠지는 일이 없이 하루하루 그날의 작업을 하는 창작자이며, 무엇을 할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못한 시기에는 그저 씨앗을 조각했다고 했다. 생에 대한 그의 태도, 그리고 유리 창고 안에서 거리를 두고 앉은 Tetokun과 행해지는 상호-돌봄이 <봄밤>과 연동한다.

글. 차연서, 2025

4. 스님은 이것을 ‘비구소리’, ‘비구니소리’라고도 말하았는데, 오로지 자신의 실연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붙인 비공식적인 말이라 설명하신다.

5. <미리-네-소리>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직접 인용.

6. 김이이수, <미리-네-소리>, 2024, 퍼포먼스, 60분, Uferstudios 초연 / Isu Kim Lee, *Miri-Né-Sori*, 2024, performance, 60min, premier at Uferstudios.

7. 차연서는 ‘작은, 구더기, 쥐, 거인, 아기, 군인, 산, 유리병, 바퀴, 톱니, 고양이, 종이’ 순서로 제목 리스트를 주었으며, 김이이수가 각각의 목소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순서를 재배치했다.